

맺속 깊은데서부터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의 비결

본문: 요한복음 7:37-39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초막절을 의미한다. 본문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이다.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자며온다. 먼저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위키 백과에서 초막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초막절(Sukkot)은 유월절(무교절), 칠칠절(오순절, 맥추절)과 함께 구약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 하나이다. 가을절기의 대표 절기이자 1년 중 마지막에 당하는 절기로 가을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에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고 있는 절기이다. 추수절, 장막절, 수장절, 구려절로도 불린다.”

이 절기는 온 백성이 큰 즐거움과 감사로 춤을 추며 찬송이 울려 퍼지는 대 축제일이다. 신약시대 때 초막절에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로 물 붓기 행사가 있었다. 매일 실로암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이다. 이 물붓기 행사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온백성이 함께 찬양을 부르며 동참한다. 이 의식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다.

물은 성령의 역사를 실감 나게 표현해 주는 상징적인 언어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숫아 나는 샘물로 묘사했고 본문에서는 생수의 강이라는 말로 표현 한것이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공짜로 예수님께 와서 마음껏 마시라고 예수님은 초청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은 무더운 여름에 목마른 사람들이 숫아나는 샘물을 꿀꺽 꿀꺽 마시듯이 성령을 마시라고 외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권면한다.

I.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무도 제한이 없다. 누구든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 인종이든지 인종의 제한이 없다. 평신도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다. 가진 자나 못 가진자나 종이냐 자유자나 신분의 차이도 없다. 다만 한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목마름이다.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의미한다. 영적인 고통 곧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 양심의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용서받고자 하는 갈급함이 강한 사람은 구원의 갈망이 생긴다,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다. 우리가 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어찌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제는 우리가 너무 육에만 빠져 있기 때문이다. 돈, 명예, 쾌락, 권력, 세상 명예에 대한 목마름은 강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다면 영적임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소경이요, 잠든 자요, 죽은 자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은 생명수를 마실 자격이 없는 자이다. 믿지 않는 자는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어쩔 수 없지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른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

요한계시록 3:1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광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들어보자.

요한 계시록 3: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 하셨다. 또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다. 이와 같은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리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쳤다. 빌립보 간수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외쳤다. 이러한 간절한 울부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은 내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신다. 그와 같은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헬라의 지혜도 로마의 철학도 다른 어떤 종교도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마실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마시는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은 무엇인가?

II. 믿는 자들의 영혼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앞 절에서 마신다는 표현을 여기서 믿는다는 말로 다시 쓰고 있다.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그를 믿으라는 말이다. 믿는다는 말을 마신다는 말로 대치해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신뢰를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생수를 마시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죄와 공허함과 목마름으로부터 벗어 나고자 하는 강한 느낌을 경험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든 회개한 신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박힌 그리스도안에서 충만한 용서와 자비와 은혜의 충만함을 공급 받은 자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문자적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경

함을 맛본자들이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 내적인 존재, 마음, 영혼, 영을 의미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 와서 마신다는 것은 단 한번 마시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 깊숙이에 샘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 마음속에 계속 흐르는 샘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강을 만드는 것이 그들 안에 있기때문에 계속 강이 흐른다는 것이다. 영혼의 만족을 위한 근원을 다시 찾을 필요가 없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자신 안에 큰 영적인 만족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들이 얻은 영혼의 만족이란 평화 사랑, 기쁨, 위로 능력을 맛본 것이다. 이런 만족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른다. 이런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인생이 된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해도 실패가 없다. 성공만 있다.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감옥 살이를 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원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이다. 애굽왕 바로가 감옥에 있는 죄수를 어찌하면 그의 스승으로 모신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창세기 31:38).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오늘 날에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해내고야 마는 사람들이다.

둘째, 이렇게 영혼의 만족을 얻는 사람은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매마른 대지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수많은 초목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듯이 한 사람의 성령 충만 한 사람은 그의 가정, 이웃, 직장에서 또한 많은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넘쳐 흐르게 한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는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를 마시면 그런 사람이 된다.

Ⅲ.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성령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신 후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우편에 올라가신 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광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교제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영광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와 능력과 교제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한 성경구절은 셀수 없이 많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이사야 58:11절에서 이렇게 예언 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흥분하게 하는 말씀인가?

한국의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나라에 얼마나 놀라

운 일이 일어나겠는가? 한국교회는 달라 질 것이고 한국 사회의 모든 부패가 사라지고 세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각 교회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10명씩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 각 교회 마다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 한 사람씩만 있어도 한국교회는 달라 질 것이고 이 나라가 달라 질 것이다.

나는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일차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한다. 그러나 그 기도는 거의 상투적인 기도이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별 관심이 없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단지 상투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심을 받도록 기도한다면 그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의 설교가 없는 설교를 못 견디겠다는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심하면 전교인이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데모라도 하고자 한다면 목사님의 설교가 성령 충만의 설교가 될 것이다, 목사는 매 주일 성령 충만한 설교를 못할지라도 한달에 한번이라도, 아니 두달에 한번이라도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한다면 그 교회는 완전히 달라 질 것이다. 그런 교회에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령충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이런 교회가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자.